



요약

사설

마리아 신심이 깊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양성 여정

가정, 우리 가정, 나의 가정

서로를 알아가기

상 바울로 - 어린이와 청소년ADMA

규정

10조 - 신심회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첫째 부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사목적 관점에서 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살레시안의 감미로움과 통합적 양성

가족의 연대기

사설

“마리아 신심이 깊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P.1

P.3

우리는 지금 언제나 성모님께 바쳐진 달, 5월 중순에 와 있고, 도우미신 마리아의 대축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일 세상 곳곳에서 이 달을 준비합니다.

P.7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 봉헌된 5월”에, 돈 보스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께 봉헌된 제단이 없다면 감사와 은혜의 표시로 마리아를 기리는 형상이나 동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 왕국, 도시, 국가 또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에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특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께 깊은 신심이 있어야 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거룩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P.8

P.9

P.11

5월은 대중 신심을 되살리고, 우리 기도를 강화하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간청하고, 우리가 삶에서 얻는 유익에 대해 더욱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배가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제공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묵주기도, 성사 참여, 9일기도, 행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제시되지만, 결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항상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과 참된 사랑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안됩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에 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내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마음과 정신에서 싹이 트고,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고, 마리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신념과 사랑에서 우러나온다...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부드러우며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거룩하다. 즉, 죄를 피하고 동정녀의 덕행들을 본받도록 인도한다...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항구하다. 영혼이 선에 확고하고 신심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이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사심이 없다. 그것은 영혼을 감동시켜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오직 그 거룩하신 어머니 안에서 하느님만을 찾도록 한다”.

세상에서 우리 신심회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마리아의 부드러움 안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마리아의 성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도코 ADMA 회장,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ADMA 영적활성자, 알레한드로 게바라

양성 여정

가정, 우리 가정, 나의 가정

우리의 양성 일정에서 교육은 빠질 수 없다. 가정에 관한 사도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정의 교육 과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심화된 장을 할애한다. **교육은 세대의 자연적인 발전, 또는 1세기 교부들이 이를 제2의 세대라고 불렀다.** 살레시오 가족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카리스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쁘다. 교육은 단지 인류학적 장소가 아니라, 신학적 장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혼란스러울 수 없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모든 진정한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 권위 있고 사랑스럽고, 강하고 선하며 까다롭고 너그러운 가족의 교육방식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

1.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 마을이 필요하지만, 가정은 교육의 근원이며 일차적 장소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 과제의 첫 번째 정식 자격 소유자이다. 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무엇보다도 가정들이 교육 과제에서 도움을 받으리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교육의 피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 다른 기관이 맡겠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 교육 사명은 성소에서 부성과 모성으로 흘러나온다. 이것은 교육이 원래 자녀들 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모든 진정한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 권위 있고 사랑스럽고, 강하고 선하며 까다롭고 너그러운 가족의 교육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학, 심리학, 학교와 국가가 교육 과제에서 가정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3. 보다 직접적인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볼 때, 자녀는 무엇보다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부모는 출산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현실에 대한 통합적 입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교육은 탁월한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위생과 영양, 교육과 사회화, 재능 훈련과 사회적 적응,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기회가 세례의 싹의 발전, 신앙의 성장, 덕의 발전, 성소에 대한 발견과 관대한 응답,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4. 모든 가정 현실과 마찬가지로 가정 교육은 그 자체를 넘어설 때 성공한다. 가정에서 성숙한 부성적, 모성적,

정서적, 교육적 능력은 다른 민간과 교회 교육기관에 공개되어야 하고 사회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관대함과 창의성으로 자기 자녀들만 아니라, 타인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자신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교육

이러한 일반적인 배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랑의 기쁨 7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귀중한 지시를 들으려 갑시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가정 교육의 대체할 수 없음과 귀중함을 솔직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가정은 자유의 좋은 습관을 배우는 인간 가치의 첫 번째 학교이다. 어린 시절에 성숙한 성향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 동안 가치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지니거나 특정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거부로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동화된 행동 방식이 마치 삼투압처럼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사랑의 기쁨 274).

가정 교육은 그만큼 결정적이며 자녀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남긴다. 이것은 부모가 “불가피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이고 열정적이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실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사랑의 기쁨 259). 말하는 방법: 교육을 해야 한다면 잘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 문화, 신앙, 사랑의 유산이 무엇인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죽음과 결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교황님은 네 가지 아이디어, 곧 교육 방법에 하나, 도덕 교육에 하나, 성교육에 대해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교육에 하나를 제공한다.

1. 교육 방식에 대해, 전체 전통의 붕괴, 문화 분열의 높은 속도와 인지적, 정서적 자극의 조속함과 과잉으로 교육이 매우 어려워진 시대에, 교황님은 **그것이 잘못 인도하는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된다고 관찰한다. 아이들은 현존, 증거, 일로 보호되고, 그들이 사는 **공간** (그들이 있는 곳,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과격한 통제가 아니라, 그들이 실존적 위치에 살고있는 **시간** 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음은 조직할 단계의 한 쌍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오락을 마련해 주는지, 화면을 통해 어떤 것들이 자녀들의 방을 파고드는지, 그들이 여가 시간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시간을 내며 애정을 다하여 중요한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들을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60).

집착은 교육적이지 않고, 자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여기서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공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늘 자녀의 행방을 알려고 하고, 자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집착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공간만을 지배하려는 것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고, 힘을 길러 주지도, 도전에 맞서게 하지도 못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쏟으며 자녀들이 자유를 키우고, 소양을 지니며, 온전한 성장을 하고, 참다운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있는 물리적 공간, 또는 지금 이 순간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에 대하여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본질적 의미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목표, 바람과 꿈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61).

그리고 교황님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염려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선형적으로 평화롭게 **자녀의 참신함, 독창성과 놀라운 결정**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구절이 있다.

많은 사랑으로, 아이 안에 그 자신의 자유의 성숙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육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현재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아니라, 실존적 의미에 있는 곳, 그가 자신의 신념, 목표, 욕구의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자녀가 이러한 자유에서 생겨난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262)

2. 도덕 교육, 즉 좋은 삶에 대한 입문, 가능성의 증대가 아니라, 행동의 질에 있어서 교황님은 신뢰의 발전을 첫 자리에 놓는다. 이것 없이는 평온하게 성장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정서적 윤리적 발달에는 부모가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 근본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적 책임을 구성한다. 부모는 사랑과 본보기로 자녀에게 신뢰와 애정 어린 존경심을 일깨워 줄 교육적 책임이 있다 (263).

또한, 근대와 포스트모던 교육학의 유산, 첫 번째 수직적 권위주의적, 두 번째 수평적 반권위주의적 유산에 직면하여, 교황님은 오늘날 인문학에서도 회복된 **선의와 좋은 습관**이라는 덕의 주제를 회복한다.

부모는 자녀의 의지를 길러주고 좋은 습관과 선한 것에 끌리는 마음을 함양시켜 줄 책임이 있다... 도덕 교육은 제안, 동기, 실질적 적용, 자극, 보상, 모범, 예시, 상징, 성찰, 격려, 행동 방식의 검토, 대화를 통하여 자유를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확고한 내적 원칙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덕은 내적 원칙과 확고한 행동으로 변화된 신념이다. 그러므로 덕행의 삶을 통하여 자유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교육하면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충동적 성향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264, 276)

오늘날 회복되어야 하고, 교황께서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복귀와 수선의 주제** 이다. 그 뒤에는 한계와 유대를 부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개발하는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한 교육이 있다.

청 소년기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가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다른 이에게 입힌 고통을 누우치는 능력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자녀는 자신이 한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교육 과정의 요구 사항을 견뎌 낸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268).

교정은 자녀의 노력이 인정받고 존중 받을 때 그리고 자녀가 자기 부모가 인내심으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낄 때 자극이 된다. 부모는 자신이 화가 나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는 교정되어야 하지만, 아이를 결코 애물단지로 여겨서는 안 된다 (269).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화의 결과는 모든 권위, 법, 규율의 몰락이다. 그 역설적인 결과는 지시와 금지의 증가이기 때문에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교황님은 부모들에게 **항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한계의 감각을 교육**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근본적인 것은 훈육이 자녀의 바람을 꺾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이 해로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녀의 바람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는 자신의 책임보다는 권리만을 생각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다른 극단은 자신의 존엄, 고유한 정체성, 권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는 자신의 의무와 다른 사람들의 바람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270).

3. 또, 성교육과 관련하여

교황님은 그 긴급성과 신중함을 인식하고 사랑에 대한 교육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배치할 것을 요청한다. “성교육은 사랑과 상호 증여에 관한 교육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의 언어가 안타까울 정도로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고 풍요로워진다” (280). 주제가 직접 섹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와 정반대되는 오늘날의 문제는 정숙과 도덕의 부족을 수반하는 자극과 정보의 즉각 성과 과잉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임무는 의지의 교육과 좋은 습관과 선한 것에 대한 정서적 성향의 발달을 포함한다

정보는 그들의 삶의 단계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전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넘치는 견해들, 통제를 벗어난 포르노, 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나친 자극들에 맞서 비판적 사고를 키워 나가도록 해 주지못하면서 넘치는 정보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81).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성교육을 옛 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건전한 정숙함을 보호하는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정숙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이다... (282)

성교육은 흔히 ‘안전한 성관계’를 통한 ‘자기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관계로 생길 수도 있는 아이를 마치 자신이 막아야 하는 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듯이,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목적인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전달한다 (283).

다음은 계획적인 아이디어이다.

그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표현, 상호 배려, 존중이 넘치는 온유함, 풍부한 의미가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만인 앞에서 서약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몸을 내주는 형태로 표현되는 온전하고 관대한 자기 증여에 대한 준비이다. 그래서 혼인에서 성적 결합은 모든 약속의 표징으로 나타날 것이며, 앞서 걸어온 길이 이 결합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283).

또한 성교육에는 남녀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서로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과 자신에 대한 매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교육은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받아들여 “성적 차이를 다루는 법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성적 차이를 없애려 하지 말도록 도와야 한다 (285).

4.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신앙 교육의 과업이다. 이것은 부모에게 하느님의 소유권과 그분의 은총의 우선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양성을 돌보면서 목자와 협력자로서 겸손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배치하도록 요청한다

신앙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받는 선물이지 인간 활동의 결과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 선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돌보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적 노력은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공로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곧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리 교육의 능동적 주체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 가정의 교리 교육은



젊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복음 선포자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도록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 (287).

결국,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앙의 분야에서 교육은 증거와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자기 부모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를 자녀가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때와 대중 신심의 표현은 그 어떤 교리 교육 수업이나 강론보다 더 큰 복음화의 힘을 지닐 수 있다. (288).

부모가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면서 다른 이들이 그들을 친근하며 친절하다고 느끼도록 하고, 자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 선교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종종 선교사가 되기도 한다 (289).

예방 교육

자신이 위대하고 성인 교육자였던 돈 보스코는 교육이 학문이나 기술보다 더 예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다. 교육은 마음의 섬세함과 구체적 감각이 필요하다. 돈 보스코의 학교에서 교황님 자신이 돈 보스코의 아이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에게서 교육 과제에 필요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배웠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교육 사업이 영원하고 이상적인 가치에 대한 언급이나 강화된 관행과 기술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항상 하느님의 표징과 시대의 표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시대의 조건과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에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살레시안의

생활 규칙의 한 구절이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다

살레시오 회원은 현실감각을 지니도록 불리웠고, 시대의 표징에 민감하며, 또한 주님께서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기에 살레시오 회원의 창의성이 있다. “나는 위험에 처한 젊은이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나 또는 하느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 살레시오 회원은 이 필요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르며, 창립자의 균형 잡힌 창의력으로 시대에 부응하고 정기적으로 자기 활동을 점검한다 (SDB 회헌 19).

살레시오 가족 신원 현장도 교육사업의 창의성과 구체적인 유연성에 중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한 도구를 나열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선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그 도구는 필요와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하느님의 말씀에 비춘 영적 식별력,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창의성,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 협력하는 능력, 검증의 의지다.



신원 현장 - 불임의 결과 없이, 무시할 수 없는 카리스마 정체성이 있다 - 역사의 움직임에 적응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의 능력, 유연성에 대해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대의 교회, 사목 및 교육 스타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강한 신보수주의 경향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좋다. 여기에 돈 보스코의 세 번째 후계자, 리날디 신부의 매우 강하고 예언적인 말이 있다.

필립보 리날디 신부는 살레시안들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그의 확언은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그룹에 적용된다. “인간의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온갖 선의 형태에 적응하는 유연성은 살레시오 회헌의 고유한 정신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정신에 반대되는 변형이 들어오는 날 우리 수도회는 끝장 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에 순종하고 시대의 표징에 비추어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쇄신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신원 현장35).

서로를 알아가기

상 바울로 - 어린이와 청소년ADMA

기쁨과 휴식의 분위기 속에서, 브라질 상 호세 도스 캠포스 , SP, 시에 있는 성 가정 본당의 어린이와 청소년 ADMA 회원들은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봉헌과 큰 사랑으로 매달 양성을 위해 만난다. 그들은 살레시오 영성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젊음의 역동성의 공간을 공유하며, 헌신과 생기로 성덕을 살고 증거할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돈 보스코가 꿈꾸었던 “두 기둥”, 성체와 도움이신 마리아께 기초한 살레시오 카리스마 안에서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회원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공부하고 노는 곳, 그들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초대된다. 양성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른 그룹으로 나뉜다. 어린이 ADMA는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 월간 모임이 제시되고 모임 끝에 항상 간식을 하며, 살레시안과 그리스도교 주제에 관한 영화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의 대화식 활동으로 제시된다

청소년 ADMA는 청소년과 젊은이를 위한 성장의 길을 제안하고 ADMA의 규정, 살레시오 가족의 신원 헌장, 총장 신부의 연례 생활지표에서 제안하는 주제를 따르며, 적절한 음악과 참여하는 언어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해간다. 그들은 영적 활성화인 마우리시오 미란다 신부, 살레시오 신학생들 그리고 지역에 현존하는 성인 ADMA 에 의해 동반된다.



규정

10조 - 신심회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첫째 부분)

“세례 받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가톨릭 신자는 신심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회원은 현 규정 제4조에 정해진 삶을 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며 소속과 연대의 정신으로 신심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4조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 듯이, 신심회에 가입하는 것은 가정, 생활 환경, 일과 우정을 특권적인 장소로 갖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포함한다.

- 전례 생활, 특히 성찬례와 화해 성사, 개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에 대한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 특히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돈 보스코의 정신에 따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살고 전파한다.

- 대중 신심의 실천을 쇄신하고 강화하며 생활한다: 매월 24일 기념, 묵주 기도, 도움이신 마리아의 축일 준비를 위한 9일기도, 마리아 성지 순례,...

- 자신의 가정에서 환대와 연대의 그리스도교 환경을 가꾸면서 마리아를 본받는다.

- 기도와 행동을 통해 가장 가난한 젊은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을 실천한다.

- 교회의, 특히 살레시오 가족의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한다.

- 복음적 자세로,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특히 어려움과 십자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시는 경이로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대한 충실함으로 일상의 영성을 살아간다.

신심회는 각 회원의 참여에 따라 생활한다. 각 회원은 모임과 다양한 활동에 친교와 협력의 정신으로 참여하고 그가 부름 받은 약속에 자신의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ADMA의 일원이 되는 성소는 성령의 활동 아래 도움이신 마리아의 도움과 그룹 지도자들의 동반과 함께 성숙된 자유롭고 동기 부여 된 응답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살레시오의 정신과 사명 안에서 교회의 봉사에 대한 신중한 식별과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삶의 선택이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사목적 관점에서 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살레시안의 감미로움과 통합적 양성

이 비디오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우 살레시오적인 주제이지만, 매우 돈 보스코적인 것이기도 하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이 주제는 감미로움이다. 돈 보스코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친절한 사랑의 실체라는 용어로 다시 제시할 것이다.

살레시오의 감미로움은 방종하지 않으며 성격의 약점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감미로움, 그가 느끼고 제안하게 될 것이고, 거의 매일 그대가 삶에서 회심하게 될 그 감미로움은 깊은 그리스도교의 모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

사실을 말하자면, 감미로움은 단일체가 아니다: 감미로움과 겸손이라는 두 용어가 동일하지 않은 두개로 이루어진 한 쌍에 속한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 두 가지의 신뢰하는 실체가 성덕의 기초라고 말하며, 또한 감미로움과 겸손은 매우 드문 덕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감미로운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살레시오다운 감미로움을 준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덕의 최상위가 확실히 겸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겸손이 다른 모든 덕의 첫째요 기초이며 우리의 마음을 감미롭게 만든다고 말한다. 들어보자.

“주님은 겸손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거룩한 겸손을 얻기 위해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자애와 겸손이 주요 밭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는 가장 낮고 다른 하나는 가장 높습니다. 건물 전체의 안정성은 기초와 지붕에 달려있습니다. 이 덕들의 훈련에 마음을 묶어두면 다른 덕을 찾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덕들의 어머니입니다. 그것들은 병아리와 암탉처럼 뒤따라 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길러온 겸덕은 근본적인 덕이다.

상탈의 남작부인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만났을 때, 그와 서신왕래를 시작했고 빛을 발하는 그의 성덕에 매료되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성인”이라고 부르면서 큰 존경심으로 편지를 쓰곤 했는데, 그의 비참한 사람을 보는 이러한 방식은 그를 매우 당황케 한다. 프란치스코가 쓴 편지 중에 다음과 같이 쓰기 때문이다:

“그대가 나에 대해 쓸 때 “성인”이라는 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딸이여, 내 안의 성덕은 진실보다 더 표면적이고, 성인의 시성식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감미로움에는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과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감미로움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가장 반복적이고, 분명히 나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문구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교육에는 한 컵의 학문, 한 통의 신중함, 인내의 바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제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확언은 더욱 진실하다: 자신과의 이 감미로움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 놀라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신 하느님께 사랑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미로움은 우리의 한계를 건디는 데서 오지만, 거칠게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인내를 가지고 **“너무나 거룩한 인내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겸손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겸손으로 돌아가 많은 자비와 함께 자랄 수 있다.

깊은 복음적 현실주의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단언한다.

“모든 사람과 인내를 가지되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인내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점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항상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나는 기쁩니다. 항상 다시 시작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자신의 완전한 영적 삶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착하신 목자처럼,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착한 목자의 자세를 자신 안에 인격화함으로써, 자기 양들의 상처를 지탱해준다.

프란치스코의 편지 일부를 더 모아봅시다.

“우리의 결점들을 좋아해서는 안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용기를 빼앗아서도 안됩니다. 그대신 우리는 겸손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을 그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낙담이나 마음의 고통, 더욱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결점과 소죄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도 안됩니다. 마치 아이의 연약함이 그의 엄마를 불쾌하게 하지만, 이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그녀는 아이를 부드럽게 연민을 가지로 사랑합니다.”

그의 회심과 우리 회심의 매일의 싸움에 대해 말하면서, 프란치스코는 특히 흥미로운 모순어법으로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감미롭게 전쟁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영적 방향은 특히 인간적이고 심오하고 매우 현명하다. 그것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고 깊은 영적 낙관주의에서 비롯되며 확실히 강력하게 고무적이다.

그의 영적 방향의 몇 가지 특성을 들어 보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선에 대한 최대한도의 애정, 매일의 기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헌신, 그리고 전혀 성내지 않는 것, 실수를 해도 걱정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항상 보완하고 시간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충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죽어야 할 삶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생생하고 온전하게 유지했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에게 말합니다: 왜 지금 불평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너무 낙담했다! 아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이 불쌍한 마음을 용서해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불충실 때문이 아니라 나약함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감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감미로움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반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몇 마디를 말하는 두 번째 장이다. 프란치스코에게서 확실히, 가족, 가정, 공동 사회 관계의 수준에서 표현되는 이웃과의 감미로움의 열쇠가 온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미로움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구세주의 마음 안에서 이웃의 영혼을 볼 줄 알게 될 때입니다. 이것 밖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결하거나 일관성있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를 참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불쾌하고 지루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이웃이 우리를 짓누르고 불쾌감을 느끼게 할 때, 오직 구세주께 대한 존경만이 그를 사랑하게 하며 이 사랑은 순수하고 우리를 내적으로 자유롭게 해 줍니다”.

전기 작가들은 프란치스코가 주교였을 때,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한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프란치스코는 물론 그를 나무랐지만, 듣고있던 사람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절제를 가지고 대했다고 말한다.

그 청년이 떠났을 때, 그 절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프란치스코는 “나는 22년 동안 내 마음의 잔 속에 간직하려고 애써온 그 작은 온유함을 15분만에 망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하였다.

성바오로6세는 1967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탄생 4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보이의 보석 “사바우디 젼마”라는 제목의 사도 서한을 썼다. 다른 사람들과의 성 프란치스코의 감미로움을 묘사하면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그에게서 삶의 최고의 고결함, 최상의 감미로움과 친절이 발견됩니다. 그는 논쟁에서 결코 폭력적이지 않으며 오류를 고치는 동안 헤매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이 다를 때 결코 논쟁적인 반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깨우침을 주는데 끈질긴 그는 오래 인내하는 법을 알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진리의 충만함으로 점진적으로 인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전기 작가들과 역사가들은 그의 특성 중 하나인 감미로움은 확실히 자발적인 것, 자연의 선물로 그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아버를 기반으로 하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복한다.

프란치스코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지속될 사랑스런 회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감미로움을 구축하였다.

여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가족의 연대기

2022년 4월 18일: 153년 동안 두 기둥에 닻을 내린...



1869년 4월 18일 이곳 발도코에서 꿈이 실현됩니다. 돈 보스코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기인한 무수한 은혜와 기적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성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세상에 발산하는 도구인 도움이신 마리아께 신심이 있는 이들의 동료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모방하고, 자신을 아이처럼 그분의 망토 아래 두면서 일상을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년이 지난 오늘날, ADMA는 살레시오 가족의 32 그룹 중 하나이며, 그 망토 아래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10만명 이상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ADMA는 살아가고, 교체하고, 사람들과 순간을 거치며 변화됩니다. 이것은 순간의 도전을 수용하고 두 기둥에 대한 충실함을 새롭게 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4월 18일은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우리의 기원, 우리가 대대로 역사를 통해 흐르는 은혜의 강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축하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 빛이 되려 노력하고, 은혜를 전파하며 우리가 경험한 것, 즉 마리아를 통해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에 잡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이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누군가 볼 것”, 베라 그리타 시복 조사가 사보나에서 열렸다



비디오: 베라 그리타 하느님의 종 시복 및 시성식을 위한 교구 조사 시작.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사보나 주교의 신학교에서 하느님의 종 베라 그리타 (Vera Grita, 1923~1969), 평신도, 살레시오 협력자, 초등학교 교사이며 살아있는 감실 사업의 “대변인”의 시복 시성 조사에 대한 교구 조사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이 날은 살아있는 감실 그룹과 살레시오 가족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살레시오 협력자들과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 (ADMA) 회원들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아침에 살레시오 가족의 시성조사의 총 청원의 협력자인 로도비카 마리아 자넷 박사는, 교회가 다양한 단계와 역동성에서 시복 과정을 추적하는 이정을 발표하면서, 베라 그리타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조했다. “베라가 자신을 많이 숨기는 방법을 알고 있던 개별적인 것에 속지 않고, 방문하고, 거주하고, 사랑받고, 귀중 하다는 작은 증거와 깊은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라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다 먼저 하느님의 눈앞에서 성인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의 조건에 대한 (아름답고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특별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프리마 Adma - 콜레 돈 보스코에서 가족 전체의 피정

2022년 4월 10일 콜레 돈 보스코에서 ADMA의 가족들은 전통적인 성지 가지 (Palme) 피정을 위해 모였으며, 로베르토 카렐리 신부가 교리를 진행 하고 알레한드로 신부의 헌존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날의 주제는 “**시련의 때의 사랑**” 이었는데, 가족들은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6장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현재를 거룩하게 살라는 권고와 배우자의 불안전함, 변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라는 권고와 함께, 가정과 여정으로서의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사실, 결혼 생활에서 - 로베르토 신부는 참석한 배우자들에게 상기시킨다 - 두 배우자 각각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하느님의 도구이며 가정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 사항은 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겸손의 시선, 사랑이 다시 태어나 강화되고 변화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예에 대한 개방성을 필요로 하는 위기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 침묵의 순간의 결과로, 또한 성체 흡수에 비취봐도, 피정에 참석한 가정의 자녀들의 전통적인 활성화는 나이 든 영적 활성화자들이 놀이를 하고 양성할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발도코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젊은이 프리마리아 ADMA의 만남



23일 토요일 우리는 발도코에 접대 된 우크라이나 가정들의 그룹과 멋진 만남을 가졌다.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친밀감,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참석할 수 있었던 젊은이들과 제공되는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눔과 봉사의 중요한 기회였고, 이 드라마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이들에게 더 큰 깨달음과 반성의 기회를 허용했다고 생각한다.

비용을 공제한 모금된 돈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특히 이 접대 된 그룹의 필요에 양도되었다.